

수능 영어 학습

(17수능 영어 5등급 -> 20수능 1등급, 21수능 영어 만점)

노베이스에서 100점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

누군가에게 몇 년이 걸릴 것을 1년만에 해내자.

By 새벽하늘(orbi, 포만한 닉네임)

LaII에서 아이디 바꿀 예정.

목차

1. 들어가는 글 - 글쓴이의 개인적 이야기 그리고 당부의 말씀(?)
2. 1년 학습의 틀(커리큘럼 짜기)/인강과 추천 교재
3. 단어 암기 방법(3등급 이하 필수)
4. 구문 강의 활용법
5. 독해 강의 활용법
6. EBS 교재 학습 및 활용법
7. 파이널 기간 영어 학습 방법
8. 잡다한 QnA

1. 들어가는 글

아래 내용은 글쓴이의 개인적인 스토리(?)와 수험 생활 중에 스스로 부딪치면서 깨달은 몇 몇 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은 영어라는 과목을 이렇게 극복했구나.” 정도만 얻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필자는 아주 평범한 머리를 가지고 있기에 영어라는 과목을 노력으로 극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수험 생활의 기본 마인드였습니다.

아래 내용의 말투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가 제일 처음 치룬 수능은 17학년도 수능 시험이었다. 무려 4년 전 시험으로 이 시절엔 영어가 상대평가 였고, 내 성적은 5등급이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아니! 과학고를 나왔는데 영어가 5등급이 말이야?! 그냥 시험 치다가 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영어 실력은 저 점수에 부합했고, 시험 시간 내내 한 번도 잔 기억이 없다.

진짜 풀 수 있는 문제는 열심히 풀었다. 사실 뭐.. 내가 영어를 거의 5년 동안 손을 놓고 살았으니 좋은 성적을 받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게 아닐까 싶었다. (중2부터 영어를 놓았다.)

그럼 여기서 의문을 하나 해결하고 가야할 것 같다. ‘지방 과학고를 나왔는데 영어를 왜 그렇게 못해?’라는 것에 대한 답을 일단 하고 시작하자.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도 싫었고, 왜 이렇게 해석을 해야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다. 그러다 보니 영어 자체를 싫어하고 성적이 낮았다. 단어를 외우는 것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에, 다니던 영어학원에서는 항상 남아서 단어 시험을 봐야했고, 나보다 한 살 어린 애들이랑 같은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아무튼, 나는 이 상태에서 앞으로 대학은 어떻게 가야하나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수학 학원 선생님이 말하길 “과학고를 가면 국어, 영어 및 수능 공부 안하고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고를 목표로 공부해라.”**라고 하셨다. 이 말을 듣고 중학생2학년 시절의 나는 ‘아! 그러면 국어, 영어 버리고 수학,과학만 공부해서 과학고를 가자!’라는 생각을 가졌다. 이 당시의 과학고 입시 전형은 수학, 과학 내신만 반영 했기 때문에, 내 생각을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내 수학, 과학 점수는 전교 2프로 안에 들었지만, 영어 성적은 거의 상위 30~40 프로 정도였다. 내 기억에 의하면 한 학년에 대략 360명이었고 영어 성적은 100등 밖을 나돌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과학고 3년 생활에서 내 머리 속에 영어가 학습된 기억은 거의 없다. 그래서 그런가 항상 모의고사에서는 5~6만 받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던 나는 ‘아.. 의대가 가고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내 내신으로 의대는 무슨.. 연고대라도 붙여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하는 성적이었기에 3학년의 나는 그냥 의대는 가고 싶지만 공부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졸업을 하게 된다.(이 당시에 영어 단어장을 샀는데 너무 깨끗해서 그 다음 해에 공부할 때 썼다...)

고3때 운이 따라줘서 거지같은 내신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의 한 학과에 합격하게 된다. 대학교 생활을 하며 매우 즐거웠기에 의대라는 꿈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러다가 한 순간을 계기로 다시금 의대라는 꿈을 생각하게 된다.

이후 1학기 중강과 동시에 휴학을 하고 수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제 여기서부터 수능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 시기의 나는 훈련조차 못 받은 훈련병이 전쟁터에 던져진 것과 같은 상황을 겪게 된다. 아마 이 상태는 지금의 예비고3 수험생, 노베이스 수험생들이 겪을 상황과 비슷하다고 본다.

처음 수능을 준비하기 시작 했을 때(반수), 독학 재수학원을 찾아간다. 거기는 과목별로 선생님이 있어서 학습 상담이 가능했기에 다니기로 결정했다. 첫 날, 나는 영어 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 머리 속에 딱 이 한 문장이 기억에 남는다. "수능 영어는 EBS 수능특강,영독,완성만 공부하면 그냥 성적 잘 나온다. 알아서 공부해라" 라고 했다. 이 시기에 내가 무엇을 알겠는가? 지금처럼 어떤 선생이 좋다더라, 어떤 교재가 좋다더라 이런 정보 하나 없이 그냥 그 선생의 말을 따를 수 밖에 ... 아마 이 상황이 대부분의 등급이 낮은 고3이 겪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필자는 EBS 연계도 중요하지만, 기초가 되는 구문 및 단어 공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EBS 책을 사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주제 요지 문제만 해도 해석이 하나도 안되더라. 뭐 이걸 당연하다 싶었다. 단어장을 외워본 경험도 없고, 문장 해석 방법도 몰랐고, 이 당시에 구문 해석 강의가 있는 줄도 몰랐으니.. 그냥 하라는 대로 문제 풀고 단어 보고 하는데.. 뭐 한 지문 공부하는데 20~30분이 걸리더라. 그러니까 더 하기 싫어지고 흥미는 떨어지고 점수는 안 오르고 이 악순환이 반복 됐다. 그러다 보니 막판에는 거의 손을 놓아서 그 결과, 71점으로 영어 3등급을 받게 된다.

이 시기에 깨달은 2가지가 있다.

- 1. 영어 공부의 시작은 단어 암기와 구문 해석에서 시작된다.**
- 2. 뭔가 방향성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선생님이 수험 생활에 필수적이구나.(독학재수하는 학생이거나 처음 수능을 준비하는 고3들은 제발 무작정 공부하지 말고 수험 생활에 성공한 누군가의 조언을 듣자!!)**

이후 3수는 강대 본관에서 상반기를, 독학재수 학원에서 하반기를 보냈다. 처음 강대를 갔을 때, 영어 선생님이 들어와서 바로 문제풀이 강의부터 진행해서, 혼자 구문 강의를 따로 들었다. 이 당시에 노베이스에게 이충권이 좋다더라 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프리패스와 함께 책을 주문했었다. 처음 이 선생님을 들었을 때, '오... 이것이 바로 신세계?'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영어 단어장 한 권을 꾸준히 외워갔다. 이후, 구문 강의를 거의 끝나갈 때 즈음, 6월 모의고사를 쳤고, 2등급을 간신히 받았다.(이 당시에 2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인 단어의 암기와 어느 정도 구문 해석이 가능했기에 겨우 2등급을 받았다고 본다. , 참고로 이 당시에 사용한 단어 암기 방법은 이후 5수 때까지 이어진다.)

이후 이전에 다니던 학원과는 다른 학원에서 독학재수를 하게 됐고, 이충권 선생님 강의를 끝까지 따라가서 수능에서 89점으로 아쉽게 2등급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이 3수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3가지 이다.

- 1. 영어도 결국 노력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겠구나.**
- 2.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강의는 절대 들으면 안되겠다.(강대 다닐 때, 영어 수업이 주당 3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나는 문제 풀이는 무슨 해석도 안 되었기에 이 3시간이 너무 아까웠다. 이 시간이 아까워 강남 대성을 나왔다.)**
- 3. 스스로 문장 해석, 지문 해석을 하지 않고 강의만 듣는다면 낯선 지문을 혼자서 시험장에서 돌파하긴 힘들겠다.**

4반수 시절에는 1학기 중간고사 이후에 영어 구문 강의를 들었고, 휴학 이후에 KISS EBS라는 EBS 연계 대비 독학서와 문제 풀이 강의를 독학 재수 학원 다니면서 진행했다.

4반수부터는 이제 군대 문제,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가 너무 컸기에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할지 확실하게 정하고 시작했다. 이전 수능의 실패와 교훈을 통해 혼자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가져갔기에 나의 주 커리큘럼은 KISS EBS 주간지였다.

그렇기에 문제 풀이 및 EBS 공부에 앞서서 단어 학습 및 구문 강의(이충권 한수비 구문)를 한 이후에 EBS 주요 지문 3회독(약150~200개) 과 유형별 문제 풀이 강의를 수강했다.(이 당시에 해석이 어렵고 지문 이해가 안되는 경우 이명학 선생님의 EBS강의를 선별해서 들었다.)

그 결과 9월 모의고사 1등급, 10월 모의고사 98점 1등급, 수능 94점 1등급을 쟁취했다.

이 4반수를 통해서선 앞선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들이 정확했다는 것이다.

이후 5수 시절에는 앞선 경험을 살려 주간 KISS EBS 풀 커리를 진행하면서 영어 자체에 감이 안 떨어지게 유지했다. 하반기에 이영수 선생님의 순서삽입 overview, 독해광(주제,요지,밑줄,빈칸), 김기철 선생님의 문제 접근의 원리를 수강하여 문제 풀이 태도를 교정했고,그 결과 수능 직전 모의고사에서 95점을 받았고, 수능 당일에는 10분을 남기고 100점을 쟁취했다.

이 긴 수험생활을 통해 느낀 것은 '수능 영어는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하며(KISS EBS 저자 셉티께서 하신 말씀인데 매우 동의함.), 그 방향을 잘 잡고 공부를 하면 1등급은 받겠다' 였다.

이런 긴 수험 생활을 거치면서 어떤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해야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일지 알 수 있었다. 나처럼 수능 영어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영어 자체를 못하는 학생에게 조금은 도움을 주고자 이 칼럼을 작성하게 됐다. 수능 영어 과목 자체에 두려움을 가졌거나, 수능 영어를 처음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서 영어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될 줄 몰랐고, 처음 공부를 할 때 전혀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100점까지 받아냈기에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스스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 좋겠다.

주의점

1. **학생들 중에 의치한약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학생들은 영어를 무조건 1등급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영어 등급별 점수차를 키우는 대학이 많아진다. 또한, 지방대의 의치한약수는 영어 1등급과 2등급의 점수차를 매우 크게 내어 2등급을 받으면 아예 진학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2. 수능 준비 초기에는 매일 2시간~2시간 반 정도 영어에 투자하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 필자는 수능 공부할 때, 매일 적어도 2시간씩은 영어에 투자했다.
3. 영어 등급별 감점을 작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생각보다 정시 지원할 때 보면 이 하나가 피눈물 나게 만든다.
4. 아래 모든 공부 방법은 내가 직접 시도했고 확실히 실력 성장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방법만을 적었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해줬으면 좋겠다.
5. 이 글에서 다루는 학습 방법들은 분명 누군가에게는 맞고 누군가에게는 안 맞을 수 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양한 것처럼 학습 방식도 자신에게 맞는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일단 내가 제시하는 A라는 방법을 해보면서 자신에게 더 잘 맞는 A'이라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이후에 A' 이라는 방식으로 쪽 진행하자.

내가 들었던 강의 목록(들다가 그만 둔 강의도 적음.)

빨간색으로 표시한 강의는 수험 생활 중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강의 및 교재만 표시함.

반수

- 심우철(이투스) : 노베이스를 위한 기초 강의(기본적인 문법 개념을 알려줌)
- 강원우(이투스) : 7시간 kill final(2등급 이하 학생들 중 파이널 기간에 듣는 거 추천.)

삼수

- KISS EBS ESSENCE (마지막에 한 번 봄.)
- 이충권 : 한수비 어법, 구문, 독해, EBS 3종, 파이널 모의고사
(삼수 이후에는 강의를 딱히 구해서 듣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한수비 구문은 나를 수능에서 살아남게 만든 최고의 강의라고 생각함. 그렇다고 이 글을 읽는 학생들 굳이 사지는 말아요.. 단과 강의로 듣기에 돈이 $\pi\pi$)

사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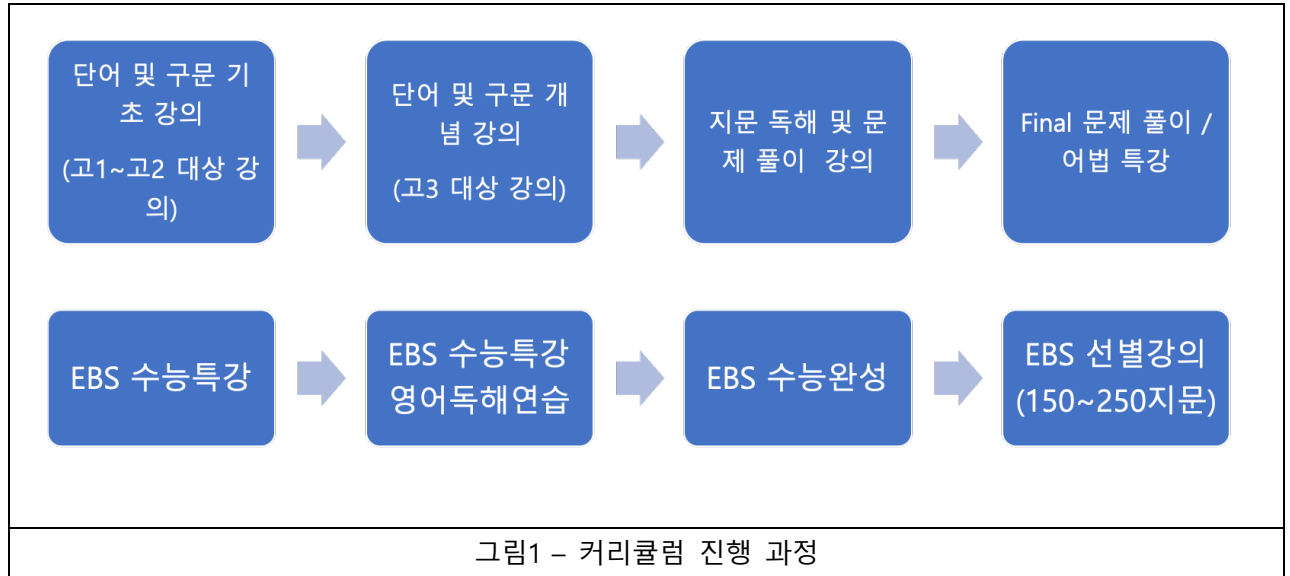
- KISS EBS 풀커리 : 주간 KISS EBS 전체, KISS ESSENCE
- 마스터피스 모의고사 vol 2(3회분, 어렵다)
- 이충권 : 한수비 구문
- 김기철 : 문제 접근의 원리 , 장지문 x-ray, 문법 특강
- 은선진 : 나는논리독해다 기본편 (나랑 안 맞아서 2강 듣고 안 들음.)
- 이명학 : EBS강의(주간 kiss ebs 진행하면서 해석, 지문 이해 어려운 것만 선별해서 들음.)
- 조정식(메가) : 빈칸, 순서삽입 강의 (2가지 모두 들다가 중도 하차.)

오수

- KISS EBS 풀커리 : 주간 KISS EBS 전체, Keygram(문법), KISS guide book, KISS ESSENCE
- 마스터피스 모의고사 vol 2 (3회분, 어렵다.)
- 선태(대성) : keygram (문법 3시간 특강. -> 덕분에 수능 영어 문법 안 틀림. Good)
- 이명학(대성) : EBS강의(주간 kiss ebs 지문 중 해석, 지문 이해 어려운 것만 선별해서 들음.)
- 김기철(메가) : 문제 접근의 원리(3등급 포함 이하 등급에게 매우 추천.)
- 이영수(대성) : 독해광(주제 요지, 빈칸, 밑줄 유형), 순서 삽입 overview (순서, 삽입 유형)

2. 1년 학습의 틀(커리큘럼 짜기) / 인강 및 교재 추천.

이 내용은 처음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커리큘럼의 진행을 알려주고자 하는 부분으로, N수생들은 이미 아는 이야기일 것이다.



위 그림은 수능 영어 대비에 있어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의 진행 순서다. 대부분 인터넷 강사님들은 위와 같은 형태의 강의를 1년 동안 진행한다. 다만, 제일 첫번째 단계인 단어 및 구문 기초 강의는 개설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즉, 고3학생 기준으로 이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다.

그렇기에 전반적인 학습의 과정은 **단어 암기 및 구문 개념 강의 -> 지문 독해 및 문제 풀이 강의 -> EBS 지문 학습 및 선별 지문 학습 -> Final 문제 풀이/어법 특강/ 선별 지문 학습/ 실전 모의고사** 순서로 진행된다.

여기서 2021학년도 수능과 2022학년도 수능의 큰 차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바로 EBS 연계율의 감소와 직접 연계 혹은 간접 연계로의 전환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학생인 2021년 11월에 치뤄질 2022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전과 연계 방식이 달라짐을 알아야한다. 현재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에서 아직 2022학년도 수능에서 EBS 연계를 간접 연계로 출제할지, 연계율은 어떻게 변경할 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한다. 이 부분은 12~1월 사이에 확정 날 예정이며 아마 이를 기준으로 수능 학습의 기준점이 바뀔 것이라 생각된다.

(직접 연계가 사라지면, 정말 순수 실력으로 진검 승부를 봐야하기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증가하고, 전체적인 1,2등급의 비율이 수능에서 감소할 것이라 조금은 영어의 난이도를 낮추지 않을까 예상된다. 어디서 들리길 평가원은 7~8프로대의 1등급 인원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니까..)

또 이전과 다른 문제가 한 가지 있다. 정시 모집에서의 영어 반영비 증가와 등급 간의 점수 차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전과 달리 2022학년도 정시 모집에서는 영어의 반영비가 증가하고 등급 간의 점수차를 크게 키우는 대학이 꽤나 존재한다. 그렇기에 영어에 대한 중요도가 이전 보다는 훨씬 커진다고 볼 수 있다. / **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영어 1등급은 필수다.(지방의 의치한약수를 모집하는 대학의 대부분은 1등급과 2등급에 점수 차이를 크게 줘서 2등급을 받으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3~5개 정도로 매우 적어진다.)**

제일 **첫번째 단계**인 단어 및 구문 기초 강의는 고1~고2 학생 중 이후에 수능을 준비하려는 학생이 하기에 적합한 강의를 말한다.. 이 포지션의 인강은 사실 강사님께서 촬영을 안하는 경우가 많고, 너무 쉬워서 다들 건너 뛴다.. 하지만, 영어 4~6등급 학생 중 고3 대상 강의를 어렵다면 꼭 돌아와서 이 부분부터 학습을 해야한다. 단어장 중에서 워드마스터 2000이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이 있다면 꼭, **워드마스터 노란색 책** 먼저 하길 바란다. 나도 워드마스터 2000을 처음 외울 때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일단 노란색 책(고등 basic, 고1~2수준)부터 공부해서 차근차근 암기를 했다.

이 단계의 강의는 아래와 같으니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하자.

- 강원우(이투스) : 해석 구세주, 독해 구세주, 듣기 구세주
- 조정식(메가) : 관촬아 어휘, 문장
- 김기훈(메가) : 천일문 기본
- 김기철(메가) :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 해석의 원리
- 이명학(대성) : 일리
- 이충권(개인사이트) : 한수비 스타터 문법, 구문

두번째 단계는 이제 대부분 고3 학생들이 시작하는 단계로 구문 학습 및 단어 암기다. 이 단계는 시간이 부족한 고3 수험생 및 재수생들이 구문 공부해서 뭐해~ 라는 생각으로 쉽게 건너 뛰는 단계다. **하지만, 내 경험상 수능 공부에서 안정적으로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해선 꼭 거쳐가야 하는 단계이다.**

모든 문제 풀이의 베이스에는 학생들이 기본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건너 뛰면 진짜 답도 없다. **다만, 해외 유학을 다녀왔거나 이미 영어 등급이 1~2등급으로 굳이 듣지 않아도 지문 해석이 어느 정도 된다면 건너 뛰어도 된다.**

구문 강의를 진행하면서 워드마스터 2000(비슷한 수준의 단어 책 1권)을 학습하고 가는 걸 추천한다. 매일매일 day1개 분량씩 꼼꼼하게 암기하면서 구문 강의를 진행하는게 최고라는 거다. **여기서 학습 해야하는 것은 문장의 형태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한다는 기본적인 틀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틀을 기반으로 이후 문제풀이 학습과 EBS 학습을 진행하면 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문장을 배운 그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통 구문 공부를 한 번 하고 나면 대부분의 학생은 **앞으로 모든 구문을 해석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EBS나 기출 학습을 해보면 그게 쉽게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어떤 구문이든 다 해석을 가능하게 해 줄 그런 **special** 한 강의를 찾고자 했던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런 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결국 자신이 연습을 해봐야 한다.

그렇기에 구문 공부 이후에 다양한 지문들(EBS 교재의 지문, 기출 지문)을 해석해보면서 막히는 문장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 지 지속적인 고민을 하고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래 강의를 계획에 참고할 것.

- 강원우(이투스) : 해석의 기준
- 조정식(메가) : 믿어봐 문장, 어휘
- 김기훈(메가) : 천일문 핵심편, 완성편
- 김기철(메가) : 문장 해석의 원리
- 이명학(대성) : syntax

- 이영수(대성) : 구문20수
- 이충권(개인 사이트) - 한수비 구문

세번째 단계는 흔히들 말하는 문제풀이 강의 단계다. 아마 이 단계는 대부분 학생들이 인강을 제일 많이 듣는 단계로, 여러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어보게 될 것이다.

선생님들은 문제 풀이를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눠서 구성을 한다. 주제,요지, 밑줄 문장/빈칸 완성/순서, 삽입 유형(간접쓰기)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물론 선생님 마다 강의를 구성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굳이 그런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강사를 듣자.

학생들이 강의를 고를 때 "A선생님의 어떤 강의가 좋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강의를 수강한다. 하지만, 이 강의가 학생에게 잘 안 맞더라도 계속 수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초반 강의들만 들어보고 계속 강의를 바꿔 듣다가 수능까지 한 강의도 완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한 개의 강의를 선택했다면 끝까지 듣기를 권한다.(근데 진짜 진짜 참다가 안되겠으면 갈아타자)

일단 쪽 들을 문제 풀이 강의를 듣기 전에 커뮤니티 사이트든, 대학을 잘 간 선배들에게 수소문해서 들을만한 강사를 4명 정도로 후보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각 강의 마다 OT,, 1강을 수강하면서 자신에게 잘 맞는 강사를 골라라. 이를 통해, 강사의 강의 방식 그리고 전반적인 강의 계획을 확인하자.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강의를 1개 골라 완강까지 예습, 수강, 복습까지 철저히 하면서 듣자. **날림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이 단계의 강의는 너무 많으므로 스스로 찾아 볼 것. & 강사중에서도 1타인 강사와 2타, 3타 등 많다. 그 중에서 누구든 자신에게 잘 맞으면 타수는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내가 들었던, 이영수 선생님은 이전에 대성에서 3타인가 4타였다.)**

마지막 단계는 이제 수능 1~2달 남겨 놓았을 때 나오는 강의로 Final 문제풀이 강의다.

영어라는 과목이 절정으로 바뀌고, 등급별 점수 편차가 적어지면서 경시되었다. 그로 인해 학생들의 영어 공부 시간의 감소와 파이널 기간의 불안감이 겹쳐 파이널 기간에 하는 압축 문제 풀이 강의가 약 3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학생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중요시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설업체에서 모의고사를 제작 및 판매하기 시작하여 실전 모의고사가 여기저기서 등장하게 됐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전까지 영어 공부를 거의 안 하던 학생이 문제 풀이 강의만 듣는다고 성적이 안 오른다는 것과 실전 모의고사를 푼다고 성적이 안 오른다는 것이다.

(실전 모의고사는 자신의 문제 풀이 방식을 돌아보면서 피드백 하는게 중점이다 보니 이런 자신만의 풀이 방식이 갖춰져야 의미가 있다.)

이 시기의 강의들은 굳이 들을 필요는 없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다만, 여태 문제풀이 강의를 듣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꼭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전에 문제 풀이 강의를 잘 수강해왔고 연습까지 한 학생이라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파트만 선별 수강해서 문제 풀이 방식을 견고하게 다지면 되기 때문에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 시기에 파이널 모의고사 해서 막 10회분 이상을 푸는 학생들도 많은데, 내가 느끼기에 파이널 모의고사는 많아야 6회분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모의고사를 푼다고 성적이 오르거나 실력이 느는게 아니다 보니 이 시기에 굳이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피드백이 매우매우 중요!)

이제는 위의 정규 커리큘럼 외의 EBS 학습에 대하여 다루겠다.

2021학년도 수능까지는 EBS 연계가 70프로 였으며, 이 당시에 다루었던 EBS 교재는 EBS 수능특강, 수능특강 영어독해, 수능완성, 수능특강 듣기가 있었다. 여기서 key point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직접연계 7개의 문항이었다. EBS는 크게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직접 연계의 경우 EBS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문항의 유형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이 때, 7개의 문항은 어법, 어휘, 빈칸 2문제, 흐름, 순서, 삽입 총 7문제 였다.) 예를 들어 EBS 교재에서는 A라는 지문이 주제 요지 문제로 나왔다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빈칸 문제로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에, 같은 지문을 여러 번 해석해보고 수능 직전에 공부를 했다면, 수능 시험장에서 30초 내에 각 문제들을 풀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문제 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7개의 문항 들 중 5개의 문항은 까다로운 유형에 배치되다 보니 실력이 부족하거나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려는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됐다.)

실제로 나 같은 경우는 수능 시험장에서 7개의 연계 문항 중 6개는 적어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시간을 단축 시키거나 문제에 대한 답을 좀 더 명확하게 고를 수 있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2022학년도 수능, 즉 예비고3학생들 및 재수생이 맞이하게 될 수능에서는 이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직 알 수 없다는 것이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연계율을 낮춘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직접 연계가 아닌 전부 간접 연계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부분은 12월 말~1월에 교육부와 평가원에서 결정을 내린 다음 알려준다고 하니 기다려봐야 알 것이다. 간접 연계로 확정 난다면, EBS 연계 교재가 의미 있을까 싶다. 하지만, 수능 1년의 준비 기간 동안 꾸준히 학습할 source로는 EBS가 꽤나 괜찮다는 게 내 생각이다.**(아 물론.. 직접 연계를 노리고 모든 지문을 암기식으로 다가가면 진짜 답도 없다.)**

일단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했던 입장에서 EBS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얘기하겠다.(후에 자세히 서술한다.)

일단, EBS 학습에 앞서서 구문 학습 및 단어장 한 권을 꼭 끝내고 들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본다.. 그래야 지문을 해석할 수 있고 받아들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구문 강의를 통해 배운 해석 법을 EBS라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한다고 보면 된다.

그렇기에 나는 1~3월에는 구문 및 단어 공부를 했고, 주간 kiss ebs 교재를 통해 3~4월(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남) 부터 EBS 공부를 시작했다. 매일 정해진 양의 EBS 지문의 단어를 암기하고 해석하는 연습을 통해 영어에 대한 노출도 자체를 높였고, 선별된 지문을 미리 3번 정도 해석을 해보면서 그 지문을 익숙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을 꾸준히 매일 1시간 반~ 2시간 정도 진행하였다. 그 덕분에 6/9월 모의고사 및 수능에서 EBS 직접 연계 문항들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7개 문항 중에서 적어도 5~6개는 시험장에서 떠올라서 쉽게쉽게 풀었다.)

이렇게 6월 모의고사 이전에 EBS 연계 교재를 빠시게 공부했다면, 수능완성 EBS 대비교재가 나오기 전까지 어느 정도 시간 텀이 생긴다. 이때, 자신에게 어려웠던 유형의 문제 풀이 강의를 수강하면서 방법론을 흡수하면 된다. 이후 9월 모의고사 전까지 수능완성 연계 교재를 한 번 빠시게 공부하고 9월 이후에 파이널 공부를 진행하면 된다.

EBS 연계 교재 학습은 크게 독학서 / 인강 교재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인강 교재 추천
 - 이명학 EO공감 영어 3종
 - 조정식 EBS 분석서 3종 / 주간지
 - 강원우 뇌각인 EBS 3종 및 파이널 EBS

2. 독학 교재 추천

- Orbi 주간 kiss ebs(매일 해야할 분량을 정해줘서 편했음)/선티께서 대성으로 이적(확실히
진 않지만.. 맞는듯..)하면서 주간 kiss는 대성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함.

3. 단어 암기 방법(3등급 이하 필수)

가. 기본적인 이야기

이제 이 단원에서는 단어 학습 방법과 암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다루겠다.

일단 수능 영어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단어는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총알과 같다.(이 비유는 orbi
의 선티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비유다) 그렇기에 1년 동안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어는
꾸준히 외워줘야 한다. 하지만, 수능을 준비하다 보면 수능 날짜에 가까워질수록 단어 암기에 투
자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문제 풀이에 시간을 많이 쓰게 된다. 그렇기에 수능을 준비하는 초기(1
월~6월)에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것을 추천한다.

일단 3등급 이하의 학생일 경우 단어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한 경험이 거의 없을 것이다. 혹
은 나처럼 더 심각하게 중학 기본 단어도 모르는 경우도 꽤나 있을 것이다.

중학 기본 단어를 알고 있다면 1년 동안 한 개의 단어장(워드마스터 2000 수준의 단어장)만 꾸
준히 본다는 생각을 가지면 되고, 중학 기본 단어도 모른다면 1년 동안 2개의 단어장을 본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워드마스터 2000과 워드마스터 고등 basic 이 두 단어장이라면 노베이스에
게 충분할 것이다.)

다만 아래에 추천하는 단어장 외에도 꼭! EBS 학습 및 기출을 학습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정리하자. 그리고 그 정리한 것을 아래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꼭 암기하자. 이게 너
를 살려줄 key가 될 것이다.

나. 등급별 추천 단어장

1) 3등급~1등급의 학생

이 등급대의 학생의 경우는 워드마스터2000 단어장 하나만 가지고 꾸준히 학습하면 된다. 만약
다른 단어장을 쓰고 싶다면, 수능 영어 단어와 관련된 기본 단어장 하나면 충분하다.

이 중에서 1등급 학생 중에 이미 단어장을 한 권 다 외운 적이 있다면, 기출 지문과 EBS지문을
학습하면서 모르는 단어들을 꾸준히 외워주면 충분하겠다.

필자는 EBS 한 지문당 모르는 단어 4개~8개 정도를 찾아서 정리해서 꾸준히 외웠다.

2) 3등급 ~ 그 이하 등급

이 등급의 학생들은 보통 중학교 기본 단어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렇기에 이 학생들의
경우 2주 동안 고등 기본 단어를 학습한 다음에 워드 마스터 2000을 들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그렇기에 워드마스터 고등 basic(노란색 워드마스터)을 2~3주 동안 암기한 이후 워드 마스터
2000을 day1부터 차근차근 외워가자. 나 같은 경우도 중고등 기본이 없어서 고등 basic 을 끝낸
다음 워드마스터 2000을 외웠다.(자신의 수준을 잘 모르겠다면, 그냥 가볍게 basic책을 훑어봐라.
모르는 단어가 꽤 된다 싶으면 이것부터 시작하자.)

다. 추천하는 단어 암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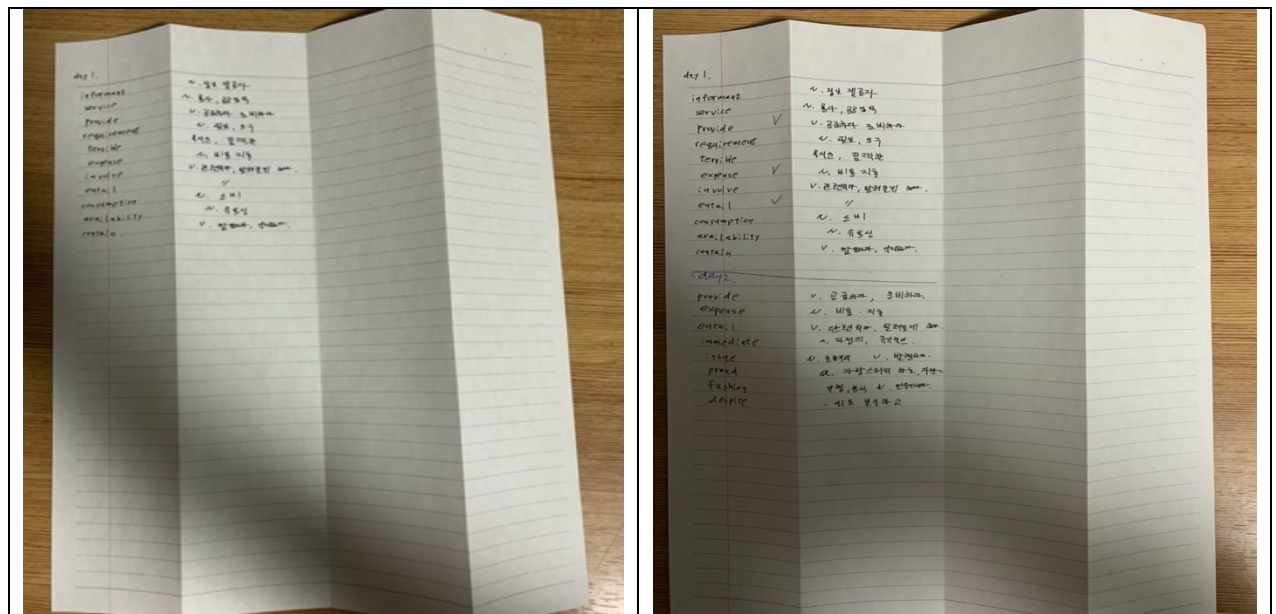
아마 학생들마다 중학교~ 고등학교 기간 동안 단어를 암기했던 방법이 각자 있을 것이다. 나도
또한, 감지 쓰듯 여러 번 써보는 방식, 30분 동안 시간을 잡고 암기하는 방식 등 다양하게 해봤다.

하지만, 그렇게 큰 도움이 안되었다. 그러던 중 단어 자체를 자주 보면 눈에 익어서 암기가 편해 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방법을 시도하게 됐다. 실제로, 내 수험 생활 중 단어를 암기하기 시작한 삼수~ 오수 동안 계속 활용했던 방법으로 자신만의 암기 방식이 없거나, 자신의 방법이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느껴지는 학생에게 추천한다.

내 방법은 "모르는 단어는 자주 봐서 눈에 익히자"이다. 누군가는 이게 뭘 방법이나.. 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자주 보고 눈에 익을수록 자동적으로 머리 속에 저장되기에 나는 이 방법이 어느정도 최선이라고 본다. 실제로 많은 인강 선생님들도 학창 시절에 비슷한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니 믿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르는 단어를 꾸준히 눈에 익히기)

일단 방법은 간단하다.

1. 학원이든 독서실이든 하루 공부를 시작할 때, 오늘 학습해야 할 단어장 페이지를 핀다. (하루에 많은 분량을 하려면 부담이 되기에 하루에 day 1개씩 할 것을 추천한다.)
2. 하루 단어 40개를 기준으로 일단 단어와 뜻을 확인한다. 이 때, 뭔가 애매하게 알고 있는 단어나 전혀 모르는 단어는 노란색 형광 팬을 칠하고 일단 하루 분량을 짹 짹 넘긴다.
3. A4 용지를 4칸으로 나누고 그 4칸에 영단어/ 뜻 /영단어/ 뜻 이런 식으로 형광 팬 친 단어를 써내려 가자. (아래에 그림으로 첨부함)
4. 그리고 나서 10분 정도 그 단어들을 계속 봐주자. 그리고 하루 공부를 하면서 2시간정도의 틈마다 10분 정도씩 봐주자. 아마 저녁 즈음 되면 어느 정도 눈에 익어서 뜻을 가리고 스스로 테스트해볼만한 수준은 될 것이다,
5. 그 다음날 학원에 오면 어제 만들어 놓은 종이에서 익숙해져서 암기가 된 단어들은 지우고 계속 봐야할 단어를 남긴다. 그리고 그 날 day에 맞는 단어장을 피고 1번부터 3번까지의 과정을 반복한다. 그 다음 종이에 이 전날 만든 단어 중 또 봐야할 단어를 먼저 적은 다음 오늘 외워야 하는 day의 단어를 써 내려간다.(이것도 형광 팬 친 것만 적으면 된다.)
6. 위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되고,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 진다 싶으면 day 5개 마다 그 하루는 다음날 단어를 외우기 보다는 이전에 몰랐던 단어들 체크해 둔 것을 하루 동안 반복하면서 보자.
7. 위처럼 반복하다 보면 그냥 단어 자체가 눈에 익어서 조금은 암기가 쉬워질 것이다. 대신에 위 과정을 반복하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꽤나 걸리며, 하루에 5회 이상 틈틈이 보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단어는 결국 틈틈이 꾸준히 보는게 최고다. 그러니까 꾸준히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자.**



Day1 작성 예시	Day2 작성 예시
------------	------------

4. 구문 강의 활용법

가. 기본적인 이야기

이 챕터에서 다룰 것은 '구문 강의를 어떻게 학습하는게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는가?'이다. 만약 자신만의 공부 방법이 있다면, 그냥 쪽 하길 바란다. 그게 아니라면 한 번 따라해 보길 바란다. 다만, 모든 학습에는 시간이 추가로 걸리기 마련이다. 실제로 내가 하는 방법까지 다 해서 1개의 강의를 다 듣고 공부한다면 강의 시간x2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 시간을 아까워 하지 말고 한번쯤은 시도해보기를 바란다.

구문 학습에 시간을 아까워 하지 말자. 구문은 수능 영어 학습에 있어서 기본중의 기본이다. 기초 공사가 안 되어있는 건물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기초를 잘 다지자!!

필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영어 단어를 정말 많이 몰랐다. 그랬기에 처음 구문 강의를 들을 때, 문장의 구성으로 인해 A처럼 해석하는 것인지, 단어가 A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이런 문제점은 노베이스 학생들도 해당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에 중점을 두고 그에 대한 방식을 말하겠다. 필자는 아래에서 서술하는 방식으로 구문 강의를 공부했다.

나. 추천하는 구문 강의

1) 1등급

사실 1등급 학생의 경우는 크게 들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자신이 감 독해를 해서 불안하거나 구문 해석을 거의 못하는 경우라면 아무 선생님 강의를 하나 선택해서 들어라. 이 때, OT와 1강을 꼭 들어보고 결정해라. 그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강의 1개를 골라서 OT부터 완강까지 달리자. 이 등급대면 어떤 강사를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2) 2~3등급

이 등급대의 학생들은 사실 감으로 독해해서 문제 푸는게 기본 form일 것이다. 혹은, 구문 학습을 한 번은 해봤지만 낯선 지문에서의 해석을 거의 못하는 학생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이 등급대의 학생은 무조건 구문 강의 1개를 붙잡고 들을 것을 추천한다.

메가스터디의 조정식/김기훈/김기철, 대성마이맥의 이명학/이영수, 이투스의 강원우/그레이스/윤훈관, 이충권 등 다양한 선생님들의 OT 랭 1강을 들어보고 한 선생님을 정해라. 그리고 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라. 물론, 방법은 아래에 내가 추천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따라가길 바란다.

3) 4등급~ 그 이하

이 등급의 학생은 그냥 노베이스다.. 이 경우 위 2~3등급 학생들의 구문 강의 보다는 좀 더 기초적인 강의(고1~2대상 구문 강의)를 듣고 시작하길 추천한다.

여러 선생님들 중에는 낮은 등급대의 학생들을 위해 기초 중의 기초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며 아래 강의 중에 하나를 듣고 나서 이후 고3/재수생을 위해 만들어진 구문 강의를 따라가길 추천한다.

메가스터디 조정식 - 관촬아 문장 및 단어 / 김기철 -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 해석의 법칙 / 김기훈 - 천일문(기본)/ 대성마이맥 이명학 - 일리/ 이투스 강원우 - 해석 구세주 등..

다. 구문 강의 효율적 학습 방법

구문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특정 형태의 구문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지를 배우는 것이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그 문장에 쓰인 단어 만큼은 알고 있어야 수업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 A라는 문장이 a b c d 라는 단어가 순서대로 있을 때, 내가 모르는 단어가 3개 이상이라면 이게 구문으로 인해 해석되는 것인지, 그 단어 자체의 의미로 인해 그렇게 해석되는 것인지 모르겠던 적이 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구문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혹시나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공부해야한다는 것이다. 강의를 듣다가 중간중간에 찾아보면 강의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지고, 짜증난다. 그러니까 미리 단어를 찾아보고 시작하자.

아래는 내가 실제로 했던 공부 방식이다.

1. 일단 구문 강의는 하루에 1강씩 일주일에 적어도 2개의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자. (매일매일 이 과정을 다 하려면 쉽게 지치기 마련이니까 1주일에 2~3개의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할 것. Ex) 월수금 수강/ 화목토 복습)
일단 오늘 들어야 할 강의 목차가 1단원이라면, 1단원에 해당하는 페이지의 문장들을 그냥 눈으로 훑으면서 모르는 단어들을 찾는다.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옆에 간단히 정리해도 좋고, 이전에 만들어 놓은 단어장(앞서 단어 암기 방법에 써 놓은 자신만의 암기 단어장)에 추가로 써도 좋다.
2. 위의 단계를 끝냈다면, 구문 강의를 수강하자. 1.5배속처럼 빠르게 하지 말고, 수업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들어라. 개인적으로 1.2배속으로 듣는 것을 추천한다.
이 때, 강의에서 방법론 적인 것을 소개하면 꼭 필기해라. 학생들 중에 필기를 전혀 안해서 나중에 복습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말자... 시간 아깝다.
3. 것처럼 강의를 듣고 난 직후에 적어 놓은 모르는 단어들을 다시 한 번 훑어라.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배운 문장들을 처음부터 스스로 해석해보자. (막힌 문장이 있다면 볼펜이든 형광펜이든 표시해라, 그 부분만 다음날 복습할 때 강의를 다시 듣고 연습해라.)
4. 이 분량이 1주일치 쌓였다면, 그 주 주말에 그 주에 들었던 내용 부분들을 다시 처음부터 해석을 짚욱 해보자. (이게 너무 부담 되면 막혔던 문장들만 다시 한 번 보자)
5.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특정 형태의 문장을 해석하는데 익숙함이 생길 것이고, 모르는 단어들은 해석을 통해 조금은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암기가 될 것이다.
(문장을 계속 해석하다 보면, 그 단어가 익숙해지면서 자동적으로 암기되는 신기한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예문을 통한 학습의 효과다)
6. 위 과정을 통해 강의를 한 번 전체 다 들었다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모든 문장을 해석해보자. 그럼에도 막힌 문장이 있다면 다시 그 문장만 강의를 듣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자.(이 복습을 한 6일로 나눠서 배분하자. 그러면 보통 학습 시간에 부합 할거다.)

주의사항

1. "영어 절평 시대에 이렇게 하면 매일 영어에 2시간은 써야하는데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쩌겠는가.. 상위권 대학을 들어가려면 해야하는 것을..

2. 이렇게 학습하려면 구문 강의를 약 8주정도 잡아야 한다.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다.

5. 문제풀이 강의 활용법

가. 기본적인 이야기

이번 챕터는 문제 풀이 강의 활용법입니다. 이 파트에서 다루는 강의는 주로 문제 풀이 방식을 다루는 강의로 주제,요지,밀줄,빈칸,어휘,순서,삽입 등의 유형을 풀어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강의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 칼럼의 내용들을 꼭 따라서 읽어 온 학생들이라면 이제 구문 강의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구문 공부 꼭 한 번은 하고 문제 풀이 강의로 넘어가라.** 자신이 1~2등급 나오는 구문 해석 능력을 갖췄다면 바로 문제 풀이 강의로 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꼭! 구문 강의든 독학서든 공부하고 가시길 바란다.

관련 강의는 매우 많기에 따로 소개하지 않겠다. 다만 아래 두 강의는 개인적으로 매우 추천한다. **대성마이맥 이영수 선생님의 독해광, 순서삽입 overview** 이 두개의 강의는 매우 추천한다.

이 파트에서 학생들이 유의할 점은 딱 2가지다. 이것만 머리 속에 확실히 집어 넣고 들어가자.

1. 강사에게 방법론을 배웠다면 꼭 이를 적용해볼 것. & 각 문항마다 피드백을 할 것.
 - 강사들이 문제 풀이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보통 예시 문제를 풀어주며,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렇기에 방법론을 배웠다면, 이를 꼭 교재에 있는 문제에 적용하고 자신이 적용한 방식이 맞는지 강의를 통해 확인해라.
 - 자신이 풀었던 과정과 강사의 과정이 다르다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그 문항 근처에 1줄~3줄 정도의 피드백을 남겨라. (나는 전체 문제 중 80프로는 맞췄다. 하지만 각 문항마다 내가 잘못 접근한 부분들도 많았던 것을 이를 통해 해결했다.)

Ex) "나는 B와 C가 붙는 것을 단순히 단어의 반복으로 봤다. 그런데 강사는 the, this에서 이렇게 이어주더라. -> the, this에 주의하자. + 뒤에 문제 풀이에서도 단어의 반복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나 확인하자.(이건 자신만의 추가적인 방법을 만드는 것. 다만 정확하지 않다는 위험성이 따른다)" 이 정도의 필기가 필요하다. 아니면 좀 더 단순화 하거나.
2. 문제를 무작정 혼자 먼저 풀어보기 보다는.. 기본적인 문제풀이 방법을 듣고 나서 그걸 최대한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업용 문제를 풀어보자. 그렇기에 강의를 들어서 A라는 방식으로 풀어라 ~ 이제 예시로 들어가보자. 라는 말이 나오면 강의를 멈추고 최대한 그 방법을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어라. 이 때,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적용해보자.

나. 문제 풀이 강의 효율적 학습 방법

1. 구문 강의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1강 이상씩 듣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다만, (내용A + 내용A 관련 문제 풀이)가 2개 강의 분량이라면 괜찮다.
2. 강의에서 내용 A를 말한 다음 문제 풀이로 들어갈 것이다. 이 때, 인강 들던 것을 멈추고 관련 문제를 풀자. 만약 자기가 애매하게 풀었다면 간단하게 한 두줄 정도 내가 이런 식으로 판단했다. 라고 정리를 해두자.
3. 강의를 들으며 강사가 이걸 어떻게 풀어내고 나의 풀이랑 비교 했을 때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자. **여기서도 한 두줄 정도 정리해두고 나중에 복습할 때 , 이렇게 정리해 둔 부분을 체크하자.**

4. 이렇게 해서 1권의 문제 풀이 강의가 끝났다면, 다시 책을 처음부터 보면서 A4 용지 한 장에 문제 풀이 방법을 요약해서 정리한다. 그리고, 이 방법론을 가지고 이후에 새로운 문제들에 최대한 적용하려고 해보자.(이를 요약해서 자신만의 언어로 정리를 하는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나중에 까먹었을 때 복습하기 쉽고, 모의고사 후 피드백 하기가 쉽다.)
5. 순서/삽입/빈칸/밑줄 문항 같은 경우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들은 형광 펜으로 체크해 놓아라. 그래야 나중에 복습할 때,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쉽게 보일 것이다.

주의사항

1. 여러 강사의 문제 풀이 방식을 듣는게 최고는 아닙니다. 물론, 강사마다 배우면 도움이 되는 지점들이 각자 조금씩 있겠지만.. 그걸 다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아깝습니다. 그냥 각 part마다 강의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만, 너무 맞지 않고 적용도 잘 안되는 방식이라서 새로운 강의를 듣겠다면 그 부분은 찬성합니다.
2. 시간이 아깝다고 강의 수가 적거나 러닝타임이 짧은 강의를 찾지는 마세요. 저도 이전에 짧은 강의가 시간을 아끼고 엄청난 득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만 찾아서 들어보려고 했던 적도 있고요. 하지만, 그게 엄청난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 다. 그렇기에 한 강의의 강의 수가 1시간 * 20 개 여도 그냥 자신에게 잘 맞는다면 들으세요.
3. 수험생 커뮤니티 보면서 요거 들을까?, 저거 들을까?" 고민은 조금만 하세요. 스스로 OT, 1강~2강 정도만 들어보면 자신에게 잘 맞을지 아닐지 감이 옵니다. 그 감을 믿고 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 하세요.
4. 문제 풀이 강의를 듣는데 해석이 너무 안된다고 무조건 구문 강의로 다시 돌아가거나 하지는 마세요. 분명 수능 영어 지문에서는 정말 해석이 어려운 지문도 있습니다. 저 또한, 고난도 빈칸 지문의 경우 해석은 잘 안되지만 방법론 적으로 AB match해가면서 푼 문항들도 많습니다. 결국, 수능은 해석을 잘하는지 싸움이 아닌 어느 정도 해석을 기반으로 문제를 잘 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 같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100점을 받았겠 죠?! (이 글 읽고 해석 연습은 안 중요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6. EBS 교재 학습 및 활용법

가. EBS에 대한 나의 생각

2022학년도 수능 즉, 2021년 11월에 치뤄질 수능에서는 EBS 연계가 이전과는 다르게 적용된다. 현재까지는 직접 연계가 될 것인지 혹은 연계율은 얼마나 될 것인지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작성일 12월 14일 기준)

지금 결정된 게 없다고 해서 아예 무시하고 지나갈 주제는 아니기에 수능 영어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을 기반으로 일단 쓰고자 한다.

EBS 연계 교재 학습은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로 빠트려서 안되는 부분이다. 물론 영어 실력 자체가 좋아서 거의 항상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라면 EBS의 중요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그게 아닌 간당간당한 1등급 학생들, 혹은 그것보다 더 낮은 등급의 학생들은 EBS 연계 학습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왜 필수적이나?” 라는 질문이 나올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나는 영어 완전 노베이스에서 점수를 끌어올리다 보니 여러 문제점들을 직면했다. 1. 단어 공부를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하는가? 2. 영어 모의고사나 시험에서 항상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하는가? 3. 구문 강의를 하나 듣고 나면 무엇으로 해석 연습을 해야하는가? (기출은 이미 여러 번 봤으니 내 해석 능력이 오른 것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려움.)

이 3가지 의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EBS라고 본다.

일단 '1. 단어 공부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내가 앞선 이야기에서 워드마스터2000 한 권이면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데 충분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왜냐하면 나는 워드마스터2000에 EBS지문을 공부하면서 찾은 모르는 단어들을 최대한 외운 상태로 시험에 임했기 때문이다. EBS 연계는 결국 시험 범위를 제시해준 것이기에 여기서 찾은 모르는 단어들, 단어장의 단어들만 학습해도 수능 범위 내에서 필요로 하는 단어 학습은 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영어 모의고사나 시험에서 항상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자.

일단 나는 국어도 그렇고 영어에서도 글 읽는 속도가 매우 느렸다. 그래서 항상 시간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겪었다. 하지만, 직접 연계 시대에서는 지문의 형태가 똑같고 문제 유형만 다른 문항이 총 7개 출제 되었기 때문에 학습을 하면 각 문항당 평균 30초~1분 이상의 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 그 덕분에 나는 항상 실전 모의고사나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시험에서 5분~10분 가까이 시간을 남길 수 있었다.

그렇다면 **“간접 연계로 바뀔 수 있는 지금은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겠다. 일단 간접 연계 방법은 EBS에 있던 지문의 어떤 소재와 비슷한 내용의 지문을 출제한다는 것이다. 간접 연계 덕분에 실제로 나는 매번 모의고사 마다 '어 이거 EBS에서 비슷한 내용 봤는데?' 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다. 그 덕분에 상대적으로 낯선 지문에서 겁이 덜 나고, 마음 편하게 풀었던 기억이 있다. 즉, 간접 연계이더라도 어느 정도 지문의 낯섬을 줄여주어 시험장에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세번째로 구문 학습용 자료가 된다는 것이다. 아마도 많은 학생들은 기출 문제 풀이나 구문 강의를 통해 어느 정도 학습된 문장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해석해보면 내 실력은 것인지 내가 수업 내용을 기억해서 풀거나 해석하는 것인지 고민이 든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낯선 지문을 해석하고 공부해야 하는데 “어떤 Source를 가지고 공부를 할까?”라는 고민에 직면한다. 이에 대한 적합한 해결책은 EBS라는 것이다. 시험 범위에 속하면서도 어느정도 구문의 난이도가 있기도 한 꽤나 좋은 재료라고 나는 생각한다.

실제로 내가 구문 강의를 들은 이후에 EBS 지문을 하나하나 다 해석해보면서 “아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런 방식으로 해석 해야겠다.” 라는 나만의 방식을 만들었던 게 어려운 지문을 극복했던 방식이 아니었나 싶다. 또한, 이 때 접했던 어려운 구문 덕분에인지 시험 난이도에 상관없이 어느정도 내용 자체는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럼 이제 요약하자. 나는 EBS라는 교재가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매우 좋은 학습 재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구문 강의를 듣고 이제 연습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EBS를 꾸준히 해석하고 스스로 피드백을 하자. 만약 그게 어렵다면 유명 EBS 독학서 및 인강 강사의 교재를 활용하자. 필자는 EBS 연계 학습을 할 때, 스스로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게 최고라고 생각했기에 orbi의 kiss ebs 주간지를 2년 동안 영어 학습의 main 재료로 사용했다.

그 외에도 조정식 - EBS 분석서 / 이명학 - 공감 EO(ebs 강의) / 강원우 - 뇌각인 EBS 등 모두 추천한다. 그 중 한 강사님을 따라서 수특/영독/수완을 꼭 9평 이전에 학습을 한 번은 하자.

EBS 지문 중에는 워낙 내용이 어렵거나 구문 독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에 꼭 강사들을 잘 활용해보자.

나. EBS 사설 교재 및 독학서 활용법

나는 앞서 말했듯이 최근 2년 동안에는 독학서를 주 학습 재료로 사용했다. 이전에는 이충권 선생님의 EBS 강의를 책과 함께 수강했는데, 여기서 강의를 들을 때 너무 큰 단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EBS 강의를 듣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해석을 해보는 경험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당시의 나는 강의를 듣고 그 문제만 복습하느라 바빴으며, 낯선 지문이 제시되었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함이 강했다. 그래서 그 다음해인 2020학년도 수능을 준비할 때 부터 shenat의 kiss ebs 라는 주간지 독학서를 구매해서 매일 6~8개 지문을 해석하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 주말에는 월~토 동안에 학습했던 지문 중 선별된 지문을 집중적으로 한 번 더 해석했다. 그 덕분에 6/9/수능 모두에서 연계된 지문 자체가 익숙하게 해석이 되었고 문제 풀이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또한, 스스로 구문을 해석하는 연습을 해 보면 스스로의 구문 해석력이 높아진다.

여기서 알아야할 것은 중요 지문은 5번 가까이 수능까지 해석을 해보야 한다는 것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문은 2번 정도만 해석해보도 충분하다. 수능까지 5번 가까이 해석을 해보면 수능 당일 마주치는 그 직접 연계 지문은 정말 후루룩 읽힌다. **그렇기에 수능에서 시간을 확 단축시키고 싶다면 중요 지문(보통 강사가 선별해주거나 독학서에서 중요한 것을 체크해둔다)을 파이널 이전에 3번은 해석 해보고 수능 파이널 기간에 2번 정도 해석을 해서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자. (필자가 수능 파이널 기간 전에 3번은 해석해보고 파이널 기간에 2번 해석을 해서 중요 지문에 대한 익숙함을 높였다.)**

그렇다면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겠다.

1. 독학서든 인강 책이든 좋다. 그와 상관 없이 매일 몇 개의 지문을 학습할지 정하자. 나는 개인적으로 **매일 6개~8개의 지문은 학습하는 것을 추천한다.** 일단 6~8개 지문을 EBS 책에 있

는 문제를 풀든 혹은 변형 문제를 풀든 대충이라도 해석을 해보면서 지문을 받아들이려 해보자.(가볍게 해석해보는 단계)/이 때, 매일매일 학습 분량을 정해주는 책이면 더 좋다.

2. 아마 대부분 학생들은 문제는 풀 수 있더라도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먹을 것이다. 그게 정상이다. 이미 한 번 읽었다면 모르는 단어, 해석이 안되는 구문이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한 줄 한 줄 해석하면서 강사가 만든 책에 있는 해석과 자신의 해석을 비교하자. (이런 부분 때문에 나는 kiss ebs를 선택했다.) (꼼꼼하게 해석을 해보는 단계)
3.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렇게 한 번 시도를 했다면 머리 속에 어느 정도 지문의 내용과 해석이 가다듬어 졌을 것이다. 그 상태로 지문을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해석하자. 그리고 책에 2~3줄 요약이 있다면 꼭 읽자..(머리 속에 좀 더 익숙하게 만드는 단계)/ 이 정도 하면 2회독
4. 만약 지문의 내용이 너무 어렵고 구문이 너무 어렵다면 인터넷 강의를 하는 선생님 중에 한분의 강의를 통해서 그 지문만 따로 들어보자. 어차피 그 강사의 책이 없어도 듣는 건 프리패스로 가능하니까. (개인적으로 이명학 EBS 강의가 이런 부분에서 좋더라.)

7. 파이널 기간 영어 학습법.(약 수능 1개월 반(6주) 전)

가. EBS 연계 공부의 마무리(간접 연계로 바뀐다면.. 굳이 이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다.)

파이널 기간 이전까지 수능 영어를 매일 1시간 30분 ~ 2시간씩 공부를 해왔다면 아마 중요 지문은 2번~3번 정도 해석을 해 본 상태일 것이다. 그런 학생이라면 수능 한 달 혹은 두 달 전에 출판되는 파이널 교재를 구매해서(hot100, go100 final, final spotlight 등..) 그냥 그것만 2번 정도 더 반복해서 해석 연습을 하여 눈에 익히자. 그러면 보통 수능장에서 직접 연계 지문 중 5개 정도는 바로바로 풀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아직 저 정도는 못 봤고 연계 공부를 하나도 안 한 학생이라면 교재를 여러 개 사서 어떻게든 연계 문항들을 다 맞추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한 교재(파이널 교재)를 사서 수능 전까지 2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자. 고난도 지문의 경우 2번 정도는 해석을 해 봐야 내용이 이해가 되며 기억이 난다. 만약 이렇게 안 하면 수능 날에 연계의 도움을 크게 못 받을 거라고 본다.

필자는 파이널 기간을 약 1개월 반으로 잡았다. 그 전까지 주요 지문 3회~5회 정도 해석 연습을 했었고, 파이널 기간에 또 2번을 더 해석 연습을 했다.(다만, kiss essence 에서 없는 주요 지문은 hot 100에서 찾아서 한 번 해석 연습을 했다.) 이 덕분에 영어 자체에 대한 친숙도가 높아졌고 수능 날 직접 연계 지문을 7개 중에 7개 체감했다.(7개 중에 7개는 매우 운이 좋은 경우다)

나. 기출 or 문제 풀이 강의의 활용

보통 파이널 기간이 되면, EBS 공부하기에 급급해 기출의 중요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수능에는 연계보단 비연계 지문이 더 많이 나오고, 수능 날 마주치게 될 고난도 지문은 비연계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기에 기출 공부를 빼놓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파이널 기출 공부를 해야하냐?”

파이널 기간을 대략 6주라고 하면 기출 문제 총 3개의 기출 모의고사를 학습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 3개의 set는 바로 그 해 6월 모의고사/9월 모의고사/작년 수능 이 3개에 해당된다.

여기서 해야할 것은 다음과 같다.

가. 문제풀이 순서 및 계획 세우기 ex) 듣기 하면서 도표, 일치 불일치, 장문3문제, 심경을 풀겠다. 라든지 시험의 운영 계획을 세울 것.

나. 그 계획에 맞춰 시간을 80분에 맞추어 omr까지 연습해볼 것.

다. 채점 후 자신이 들은 문제 풀이 강사의 강의를 통해, 각 문항별 풀이 방식을 피드백 할 것.(보통 이시기에는 이전에 배운 문제 풀이 방식을 까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꼭! 문제를 푼 다음 그 강사의 강의를 통해 문제 풀이를 피드백 해라.)

라. 각 문제마다 정답이 되는 point에 형광펜 칠을 해두고, 이걸 정해진 5회분 혹은 3회분 시험지에 똑같이 다 해라. (시간이 많으면 5회)

마. 모든 시험지가 끝나면, 영역별로 뭔가 함정의 point가 있는지 혹은 막혔을 때, 어떤 시도를

할지 행동을 수립하라.

Ex) 나의 경우 파이널에 총 3회의 시험지를 풀었으며, 월,화,수,목,금 5일은 EBS 연계 학습, 토,일은 기출 및 문제 풀이 내용 수강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여 파이널 약 6주 동안 EBS연계와 마지막 기출 3회분을 학습했다, 그러면서, 주제 요지에서 나올 수 있는 함정 포인트를 정리하고, 순서 삽입 유형에서 어떤 point가 정답과 이어지는지 정리를 했다. 수능이 끝나고 그렇게 정리했던 것을 다 버려서.. 아마 이와 관련된 실제 예시는 나중에 업로드하도록 하겠다,

다. 실전 모의고사의 활용

이 부분은 앞에서 다룬 파이널 기출 활용과 관련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영어 과목의 경우 파이널 기간에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 있다. 실제로 나 같은 경우 수능을 준비하면서 푼 영어 실전 모의고사는 열 손가락 안에 꼽는다.(이투스 월레 모의고사 및 대성 모의고사 제외)

(참고로 모의고사마다 피드백도 잘하고 그랬으면, 많이 풀어도 괜찮다. 다만 EBS 직접 연계가 유지된다면, 모의고사를 굳이 많이 풀 필요는 없다.)

그렇기에 파이널 기간엔 실전 모의고사를 많아야 3회분 정도를 풀었고, 이번에는 2회분을 풀었다. 그럼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진다. "아니! 점수가 좋은 학생들은 모의고사 많이 풀던데 우리들도 성적 올리려면 많이 풀어야 하는거 아냐?!"라고 할 수 있다. 내 대답은 No다.

실전 모의고사는 결국 자신의 감 유지와 자신의 문제 풀이 방식의 피드백이 메인이다. 그렇기에 이게 점수를 올려주지는 않고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방식을 정교화 하는게 주가 되기에 많이 푸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튼. 파이널 기간에 6주 동안 2주에 1회 혹은 주당 1회의 모의고사를 풀면서 꼭 문제 풀이 방식마다, 혹은 문제 풀이에서 막혔다면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자. 이는 모든 문항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나는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에서 모두 듣기 2개씩 틀려서 1등급을 못 받았다. 이게 너무 억울하고 짜증이 나서 듣기 문제를 풀 때도 나만의 루틴을 정해서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듣기 전에 선지를 먼저 읽어볼 문제와 그렇지 않을 문제도 분류했었다. (이 덕분에 수능에서 듣기를 안 틀렸지 않을까 싶다.. 진짜 **듣기에서 틀려서 등급 떨어지면 눈물 흘린다 조심하자.**)

8. 잡다한 Q&A(이건 추후에 질문 받아보고 보고 업데이트 될 예정)

- 아래 학생의 말투는 강남대성학원 수학강사 '이정용' 선생님이 생각나서 따라해봅니다..

Q1.

학생 : 어이 선생 당신은 5수 해서 겨우 100점 받은 거면 내가 어떻게 1년 만에 1등급 받아?

솔직히 여기에 구라도 있는거 아니야?

나 : 내가 솔직히 5등급에서 1등급 나올 때 까지 걸린 시간으로 치면 2년이야. 반수/삼수/사반수 이렇게 총 4개의 분기(약 1분기에 6개월) 동안 올린 거니 거의 2년이긴해.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할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고, 너는 이렇게 내가 방향도 잡아주는데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지금 적은 것 1년 동안 꾸준히 했다면, 2등급 이상은 나올 건데 믿고 그냥 해.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것보다 이렇게 알고 시작하는 게 보장은 되잖아?

그리고 구라일 확률은 0퍼센트... 나랑 중고등학교 같이 나온 친구랑 친한 친구들은 다 알아.. 내 성적표에 찍혀 있던 한자리 수학, 과학 등수와 세 자리는 그냥 찍고 있던 내 영어 성적.. 그리고 꾸준하게 영어 공부해서 겨우겨우 올린 노력의 산물이라는거.

Q2.

학생 : 어이 선생 1타 강사가 최고니까 1타인거 아니야? 왜 지금 2타인 강사 추천해?

나 : 1타강사가 최고라서 1타인 것은 아니야. 1타는 그 사이트에서 매출이 1등인 경우를 말해. 그러니까 2타~N타 등 타수에 상관 없이 자신에게 잘 맞는 강사와 강의를 찾아! 그게 최고야! 실제로 내가 처음 이영수를 접했고 강의를 들었던 건 4타,3타 시절이야. 이미 N수로 짬을 먹을만큼 먹어서 타수와 상관없이 나에게 맞는 강의를 찾던 하이에나였기에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강의를 찾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

Q3.

학생 : 글 읽다 보면 특정 강사의 책을 계속 언급하는데 너 알바 아니야?

나 : 그럴 리가 있나... 일게 과외 선생(이투스 멘토)에 불과하고, 얼마전까지 수험생이었던 내가 무슨 파급력이 있다고 그러겠어... 그냥 내가 공부하면서 접했던 교재, 내가 들었던 강의를 토대로 너에게 추천한 것 뿐이야. 누군가에게 이 책이 혹은 이 강의가 큰 도움이 안 됐을 수 있어. 다만 나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너에게 제일 잘 맞는 강사를 찾아. 그게 최고야.

Q4

학생 : 상대평가 5등급에서 이번에 100점 받았다는데 증명해줘!

나 : 성적표 인증이야 어렵지 않지. 이후에 평가원 사이트 안정화 작업? 끝나면 그 때, 성적표 인증할게. 100점인건 증명할 방법이 가채점에 써온 거 빼고는 방법이 없네.. 이것도 한 번에 인증할테니까 걱정 하지 말고 일단 이 칼럼에 있는 내용부터 확실히 읽고 공부에 써먹어.